

계획 의무 불이행 조례 41건에 달해

익산시의회, 종합계획 의무 여부 전수조사 실시

김경진 의장 “조례 명시된 사업 불이행은 불복행위”

익산시의 자치법규에 명시된 각종 종합계획이 수립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14일 제 26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각 위원회 소관 조례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이중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종합계획 의무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기준 대상 조례 156건 중 계획 의무 규정을 수립하지 않은 사례가 41건에 달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조례 수 237건 중 계획 의무 58건, 불이행 조례는 16건으로 대표적 조례는 지난 2022년 제정된 ‘익산시 창업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은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조

례 수 196건 중 계획 의무 60건, 불이행 조례는 12건으로 대표적 조례는 지난 2011년 제정된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총 조례 수 143건 중 계획 의무 38건, 불이행 13건으로 대표적 조례는 지난 3월 제정된 ‘익산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익산시의원들은 조례에 명시된 계획 규정은 시정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시발점이자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는 중요한 의무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직무태만이며 결국 시장의 의

자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진 의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의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된다”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집행기관과 의회라는 두 바퀴로 움직이는 큰 수레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상당 부분 보장되어 있어 조례를 만들고서 활용하지 않는다면 조례를 불복하는 행위이다”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례의 계획수립 의무 조항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세심히 분석해 보고, 미이행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15일부터 제266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3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 본예산, 2024년 결산추경예산안 등에 돌입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장 전반을 철저히 검증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디아로움 취업박람회 성료

순수분·삼양식품 등 8개 기업 참여... 80여 명 채용 목표로 면접

익산시 디아로움 취업박람회가 정기적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19일 지역 우수업체인 순수분 주식회사, 삼양식품 등 8개 기업과 1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청년시청에서 올해 10번째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80여 명 채용을 목표로 현장 면접을 진행해, 채용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구직자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기업의 열기가 박람회장을 가득 채웠다.

또한 현장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상담 등 구직자의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앞서 시는 성공적인 취업박람회를 위해 기업 관계자를 만나 지역 인재 채용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폴리텍 대학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해 다양한 연령과 경력을 가진 구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취업박람회가 일 자리를 찾는 시민과 인재를 원하는 기업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채용되지 못한 구직자들도 계속해서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신원식 부시장, 국회 찾아 예결위원 면담·지역 현안사업 반영 위한 예산 지원 요청 등

19일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은 국회를 방문,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군산시 현안사업 대응을 위한 건의 활동을 펼쳤다.

신 부시장은 신영대 국회의원실을 비롯해, 윤준병·최형두 등 예결위원들을 잇달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신 부시장은 국가예산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사업의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

였다.

이날 건의한 군산시 주요 사업은 △국가 어항 승격 후에도 어항개발이 되지 않아 어업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어민들을 위한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밸류체인 확립 및 산업생태계 완성을 위한 ‘친환경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산업단지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들의 원활한

생활활동 지원을 위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개선’ △월명산 전망대 유니크베뉴 등 지역 상징물(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 △군산시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이다.

신 부시장은 이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탄력’

2026년까지 837억 투입해 2단계 사업 신속 추진

군산시는 19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탄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 발전 정책을 감내해온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고,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2026년까지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한다.

군산시는 주한미군 주둔지역인 옥서면을 비롯한 주변지역 일대를 1단계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365억원을 투입했다. 이 예산으로 군산공항로, 타운로, 백토고개 확장공사 등 8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지역 균형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했다.

2단계 사업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83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올 2024년에는 118억 원을 확보하여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지방도 709호선(옥구~옥서)확포장공사, 신덕~개정마을 도로 확장공사 등 5건을 본격 추진하는 중이다.

지방도 709호선(옥구~옥서)확포장공사, 신덕~개정 도로확포장, 신풍동 소방도로, 옥서면 일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에스티에스, 업종 전환·혁신적 제품 개발

군산대 고등기술융합연구원의 전폭적 기술 지원 받아 ‘결실’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에스티에스 주식회사(대표이사 박효석)가 군산대 고등기술융합연구원(이하 연구원)의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놀라운 혁신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기존 일반 목적용 기계제조업 회사였던 에스티에스 주식회사는 고등기술융합연구원의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자동차용 부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으로 업종 전환에 성공하였다. 이와 함께 사업다각화를 추진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스티에스 주식회사는 “사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과정에서 군산대학교 고등기술융합연구원의 전폭적인 기술 지원이 크게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 소방차 시장에서 소방서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극복하고 납품에 성공하여, 글로벌 판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확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차량 브레이크 서스펜션과 서브프레임의 공용화 개발 부분에서 우리 연구원의 현가시스템개발 및 컨설팅 지원을 바탕으로 설계 과정에서 원가 절감을 이루면서도, 기존 부품과 완벽



히 호환되는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은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차량 모델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정환 원장(기계공학부)은 “우리 연구원의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업종 전환과 기술 혁신에 성공한 에스티에스 주식회사에 축하드린다”면서 “우리 연구원은 지역내 기업과 함께 상생·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북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수혜기업들이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과학적 분석으로

약취 저감 종합계획 수립

약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익산시가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몇년 간 약취 민원이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익산시에 접수된 연도별 약취 민원 발생 건수는 △2020년 3,636건 △2021년 3,478건 △2022년 2,028건 △2023년 1,335건으로 약 63% 감소했다.

시는 약취 민원 대응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자료 분석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분석 내용은 △약취 발생 현황 △약취 발생 지역 분포 △약취 특성 △다빈도 약취 발생 원인 등이다.

특히, 시는 약취 민원 중에서도 ‘축산’ 관련 민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축산환경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팀을 선정했다. 시는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약취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4대 발달성 질환

7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익산시가 지드거나 들쥐를 매개로 발생하는 발달성 질환에 대한 피해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시는 발달성 질환인 △쓰쓰가 무시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4개 질병에 걸릴 경우 1인당 7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야외활동 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 치료비 지원은 치료 후 농업인 안전보험에 청구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발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야외 활동 시 긴 소매를 착용하고, 작업 시 장갑 착용을 생활화 해야한다”며 “고령 농업인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지원 혜택을 당사자들이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